

“21세기 불교중흥 틀 다지기”

지난 8월27일 월주스님이 발표한 조계종 총무원 하반기 중점사업 가운데 눈길을 끄는 부분은 출가수행자의 노후복지 대책이다. 총무원에 따르면 종합적인 승려복지제도의 첫걸음으로 97년부터 세남 40세이상 스님들에게 재해, 질병시 의료비제공과 사고후의 보장은 물론 노후시 연금까지 지급 하겠다는 것이다.

이제도는 그동안 개인 또는 일부 사찰에서 부분적으로 승려노후대책이 시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때 모든 출가수행자가 노후에 대한 고민없이 마음놓고 수행과 교화에 정진할 수 있는 풍토가 마련된다. 점에서 획기적인 사업으로 평가되고있다.

현재 40세이상 조계종소속 스님은 3천명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연금혜택(60세부터)을 받을수 있는 40-59세 스님은 1천9백여명. 이들 스님들의 보현료를 중단에서

조계종 총무원 하반기 중점사업발표 의미

전액부담하게된다. 이를위해 총무원은 내년 종단예산에 승려노후복지비 15억원을 책정하고 출가수행자의 특수성을 감안해 보험회사와 새로운 상품개발을 교섭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비 제공·새 청사 마련등 '수행전념 풍토' 조성

또한 총무원은 최초 몇년간은 안정성과 수익성이 높은 보험회사와 연계해 시행하고 3-4년후에는 독자적인 의료보험 조합과 자체 공조회를 결성해 재정활용을 극대화 한다는 복안도 세우고 있다.

한편 불교종합회관(조계종 청사)건립도 총무원 숙원사업의 하나이다. 금년에 처음

으로 10억원의 예산을 책정한 총무원은 조계사부근 부지매입이 원만하게 진행됨에 따라 내년에는 50억원을 투입해 본격적으로 불교회관건립을 추진, 98년도에 준공할 계획이다. 총무원은 빠르면 9월중으로 불

교종합회관 건립 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날 월주스님은 "불교회관 추진의 결정에 따라 불교방송, 불교텔레비전 등 교계 유관기관도 들어설수 있도록 설계할 용의가 있다"고 밝혀 불교인문 통합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월주스님은 이밖에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중앙분담금의 30%범위에서 각 교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교구보조금제도를 시행하고 중앙승가대학 이전불사추진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월주스님이 밝힌 하반기 사업계획은 추가로 50억원의 일반회계 세출이 발생하게

되어 재정마련이 관건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총무원은 4.8봉축행사등 중요한 행사이외의 행사는 폐지하거나 중단 산하법인이나 단체에 이양하고 각종 행사지원·보조·행사비를 최대한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준엽 기자

해인골프장 반대 '유네스코 진정서' 왜 내나

해인골프장 건설과 관련 해인총림 대책위가 팔만대장경을 유네스코의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목록'에 등록과 함께 진정서를 제출, 국제적인 여론을 환기하고 중국에 가서는 골프장 건설을 막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

명하고 있는 문화 및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재산'이 그것으로 이에따라 세계문화유산으로 팔만대장경이 소장되어 있는 가야산에 해인골프장은 건설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공사가 재개될 경우 세계유산위원회

주변환경보호가 기본적인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가야산에 골프장이 추진된다면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대 명예교수 이태원박사는 "해인사 팔만대장경은 장경각안의 표면온도가 2도이상 차이가 나지않는 통풍구조로 자연의 요소와 일치돼 7백여년동안 보존될 수 있었다"며 "주변의 모든 자연적 부분이 해

대장경 주변환경 '인류 관심사'

'위험 처한 유산목록' 등록...국·내외 여론 환기

회에 거론할 것으로 보여 해인골프장은 환경보호와 문화재보호라는 측면에서 한동안 태풍의 핵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협약 제11조 4항은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목록을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내

에 안정적 보존을 위한 자원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또 팔만대장경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신창해지 문화유산보호 의무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정부의 소극적정책에 책임을 짊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에따라 유네스코에 등록된 세계 문화유산은 어떠한 개발도 제한되며

손되면 팔만대장경이 위험하다고 밝혔다.

해인골프장 건설은 문화재 및 환경보호, 정부의 환경정책 부재등 다양한 문제들을 드러내며 한국환경운동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김원우기자

재건-총무원 관계개선 '미지수'

전국신도회 회장선출 그후...

전국신도회가 박완일씨를 회장으로 선출함으로써 일단 구상점을 확보하고 '40년 범종'의 전신회 복구에 나섰다. 박완일씨는 박완일씨를 회장으로 선출함으로써 구상점을 확보하고 '40년 범종'의 전신회 복구에 나섰다.

우선 조계종 총무원이 주요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앙신도회 구성에 전국신도회가 어떤 형태로든지

다. 월주 총무원장도 박완일회장과 전화통화에서 "자주 만나 상의하자"는 원칙만을 피력했다. 이는 지난 6월 총회에서 "전신회 지원 인정, 중앙신도회 합류"를 제안했지만 전국신도회가 회장을 선출함으로써 총무

원장의 제안을 거부한데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도 풀이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박완일씨를 회장으로 선출한 것은 총무원과의 대

체제만을 만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박완일회장이 선출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총무원 구상에 전신회가 장애가 되어서는 안된

다는 것이 내 생각"이라며 "스님들의 오히려 없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국신도회가 조계종 총무원에 부담이 된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전신회는 이와함께 구시대 색채를 어떻게 탈색시키느냐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전신회 대의원 일부에서는 선출과정에 하자기 있다며 대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 또 박완일씨도 구시대인물에 포함된다는 주장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도 전신회가 풀

어야 할 숙제이다. 한편 전국신도회장의 본격적인 조직정비작업이 중앙신도회 창립을 앞당길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지방신도조직이 전신회의 구심력에 빨려들어갈 것을 우려해 창립작업을 서두르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다.

정성문 기자

“한발씩 서로 양보 한뿌리 결속 확인”

조계종선학원 '전격화해' 배경과 전망

첨예한 갈등을 빚어오던 조계종과 선학원이 지난 8월27일 양측의 최고책임자와 실무자들이 전격적으로 회동함에 따라 일단 분종위기는 넘기게 됐다.

그동안 평행선을 그어오던 양측이 서로의 입장에서 한발씩 양보해 이날 합의문을 발표한 것은 어느 쪽도 분종에 대한 중도들의 비난을 감당할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불법에서 나뉘던 조계종과 선학원의 분종위기는 지난 8월31일부터 시작된 제11기 행사교육원에 선학원소속 행자가 제외되자 선학원도 자체 교육원을 추진하면서 본격적으로 돌출되었다. 막다른 골목에서 양측이 선택할 유일한 방안은 '조건없는 만남'이었던 것이다.

종헌·정관 개정여부 관심

이날 양측은 합의문을 통해 서로가 역사적으로 한뿌리를 확인하고 향후 현안문제는 협의기구를 구성해 풀어나가기로 했다. 협의기구가 풀어야 할 현안문제는 조계종이 요구하고 있는 '법인정관에 조계종지 분대 삽입'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선학원측이 재단 내부규정에 "재단의 임원은 조계종 승려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하고 일단 피해갔으나 여전히 갈등의 불씨일 수밖에 없다. 선학원에는 조계종뿐 아니라 다른종단 소속 사찰이 소속되어있기 때문이다.

조계종도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다. 조계종은 그동안 "·법인을 설립할때는그 정관에 담겨 법인이 분종 관장하에 있음을 명기하여야 한다"는 종헌(9조3항)에 의거해 사실상 종단산하 법인체에 규제를 단행하고 있는 가운데 선학원만 예외로 할 수 없다는 부담이다.

그러나 화해분위가 조성된 마당에 각자의 자존심(?) 때문에 또다시 분열된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는 것이 전종도들의 간절한 바람이다. (영)

시론 우리도 성숙한 백성되자

지난 해 11월 전직 두 대통령이 구속된 것을 기점으로 하여 지난 8월26일 판결이 끝날 때까지 국내외의 관심은 매우 지대했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그러할 것이다.

그간 거의 매일같이 이 문제가 언론을 통해 혹은 구전을 통해 끊임없이 이어졌다는 것은 이 사건이 그만큼 민감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두 전직대통령 중형선고

세상을 떠나 출가수도하는 몸으로서 세상에 무엇을 안다고 이 문제를 거론하리라는 나 또한 이 땅에 나는 수초를 먹고 사는 국민의 한 사람이기에 여기에 소감의 일단을 피력한다.

나의 소감이란 이러한 불상사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열원이다.

이반의 판결이 물론 재심 상심이 많았지만 이 판결을 놓고 형량이 적

정하다, 지나치다, 미흡하다 등 갖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나는 그렇다.

이러한 견해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소신에 따른 것이어서 타할 바는 아니다. 타할 바 아닐뿐 아니라 당당하게 갖가지 의견을 소신껏 표출하여 민족적인 감정을 받아야 한다.

이처럼 각기 다른 의견이 법치주의에 인해서 법

답게 여과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골을 파면서 살아야하는 가공할 상황을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두 전직대통령을 비롯한 연루자 여러분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할 것이 아니라 잘 하려던 것이 잘못 되었으면 잘못된 부분은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았다는 겸허한 생각으로 임해야 할 것이요, 그를 바라보는 국민들도 이 일이 비록 가려져서 굴절된 국민감정을 바로잡는 불사

일본 감정으로 치달아서는 안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해야 하리라 본다.

사람이 사는 곳에 어찌 잘못이 없을 수 있겠는가. 단 그 잘못이 예초에 의도적으로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우발적인 실수였는가. 또는 그 잘못을 모르는가의 차이가 있을뿐이다.

법은 이 점을 두루 가려 엄정한 판단을 해야 하고 국민은 그 판결을 믿고 따를 때 "우리도 성숙한 백성들이"고 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것은 불행한 일인가, 다

행한 일인가. 나는 이 일은 필연적인 일이며, 다행한 일이라 생각한다. 왜냐 부처님 말씀에 "인과의 법칙을 믿으라"하신 것이 자주 보인다. 이 인과의 법칙으로 보아 당사자는 당사자대로 별업(別業)을 지었고 국민은 국민대로 공업(共業)을 지은 것이 오늘의 현상으로 터져나온 것이기에 말이다. 다시 말해 그럴만한 요인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행인가. 큰 역설같지만 "고름이 삶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 삶 되지 않음 고름을 두고두고 앓는 것보다는 쪽 찢고 수술을 받게 되었으니 다행이 아닌가 하는 말이다.

지난날 병이나도 병원일 갈 수 없었던 시절보다는 오늘날 병이 나면 필요에 따라 쪽쪽 찢고 수술 받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이제 우리는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자고 할 만치 민도가 높아졌으니 또 한 번의 다행인가.

지난날에도 무리하게 정권을 빼앗겨나 남의 나라를 유린하는 등의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그때는 그럴 만한 민족적인 안목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몇 백년이 되는 오늘까지 미결수로서 명부에 대기하고 있다. 그러나 죄가 있다면 죄값을 갚아야 한다.

이처럼 각기 다른 의견이 법치주의에 인해서 법

답게 여과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골을 파면서 살아야하는 가공할 상황을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두 전직대통령을 비롯한 연루자 여러분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할 것이 아니라 잘 하려던 것이 잘못 되었으면 잘못된 부분은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았다는 겸허한 생각으로 임해야 할 것이요, 그를 바라보는 국민들도 이 일이 비록 가려져서 굴절된 국민감정을 바로잡는 불사

일본 감정으로 치달아서는 안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해야 하리라 본다.

사람이 사는 곳에 어찌 잘못이 없을 수 있겠는가. 단 그 잘못이 예초에 의도적으로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우발적인 실수였는가. 또는 그 잘못을 모르는가의 차이가 있을뿐이다.

법은 이 점을 두루 가려 엄정한 판단을 해야 하고 국민은 그 판결을 믿고 따를 때 "우리도 성숙한 백성들이"고 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것은 불행한 일인가,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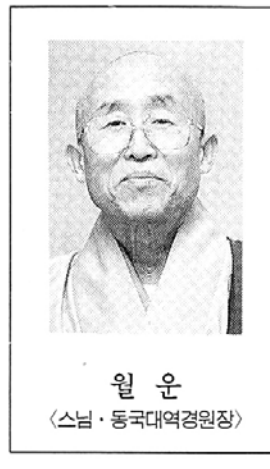
행한 일인가. 나는 이 일은 필연적인 일이며, 다행한 일이라 생각한다. 왜냐 부처님 말씀에 "인과의 법칙을 믿으라"하신 것이 자주 보인다. 이 인과의 법칙으로 보아 당사자는 당사자대로 별업(別業)을 지었고 국민은 국민대로 공업(共業)을 지은 것이 오늘의 현상으로 터져나온 것이기에 말이다. 다시 말해 그럴만한 요인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행인가. 큰 역설같지만 "고름이 삶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 삶 되지 않음 고름을 두고두고 앓는 것보다는 쪽 찢고 수술을 받게 되었으니 다행이 아닌가 하는 말이다.

지난날 병이나도 병원일 갈 수 없었던 시절보다는 오늘날 병이 나면 필요에 따라 쪽쪽 찢고 수술 받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이제 우리는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자고 할 만치 민도가 높아졌으니 또 한 번의 다행인가.

지난날에도 무리하게 정권을 빼앗겨나 남의 나라를 유린하는 등의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그때는 그럴 만한 민족적인 안목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몇 백년이 되는 오늘까지 미결수로서 명부에 대기하고 있다. 그러나 죄가 있다면 죄값을 갚아야 한다.

이처럼 각기 다른 의견이 법치주의에 인해서 법



월운 (스님·동국대역경원장)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 서울대회

1. 대회명

「韓·中·日 佛敎友好交流會議 서울大會」

2. 대회주제

「21世紀에 있어서의 韓·中·日 佛敎의 使命」

3. 일시

1996년 9월 9일 ~ 12일(3박4일)

4. 장소

서울 세라톤위커퉴 호텔 ☎(02)453-0121

5. 개요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 서울대회」는 한국, 중국, 일본 불교계를 대표하는 각 종단 고승대덕 최고지도자들이 모여 과거 삼국 불교 우호교류의 역사적 전통을 계승하고, 21세기에 있어서의 삼국 불교의 사명을 모색하기 위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세계민족구제, 환경보호, 학술, 문화, 정보교류 등 제반 실천사항을 가지고 삼국불교 각자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 사업 추진에 따른 논의와 결정을 하는 3국 불교계 최고 대표 회의입니다. 본 대회는 국제 회의와 문화행사 형태로 진행됩니다.

6. 취지

오랜 역사를 이어 오면서 우리 민족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쳐 정치, 외교,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어 온 나라는 중국과 일본이었습니다.

과거 한·중·일 삼국간의 교류 역사 가운데 가장 빈번했던 분야는 문화 교류였고,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손꼽을 수 있는 것은 고승들의 구도 행각과 포교, 사상 교류와 전파, 불경과 문물 등 불교의 인적, 물적 교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교류를 통해 한국과 일본은 불교의 우수한 문화와 제도 등을 받아들여 국가의 기반을 다지기도 했습니다. 이와 아울러 신라 원효 등 헤아릴 수 없는 고승대덕들이 수많은 저술을 통해 중국과 일본 불교에 사상적 영향을 미치는 등 상호 교란적이며 보완적인 우호 관계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삼국 불교계의 오랜 우호적 교류의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삼국 불교계는 95년 5월 중국 북경에서 1차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차대회시 인민대회장에서 열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이서환 주석의 만찬, 강택민 중국 국가주석 예방, 개·폐회식에서의 중국을 대표하는 수많은 정치인들의 참석, 중국·일본 각계 유명 인사들의 축진등은 앞으로 삼국 불교계 유대와 우호교류의 앞날을 밝게 해주는 뜨거운 관심과 성원이었습니다.

이번 2차 대회에서도 한·중·일 불교협회 회장을 비롯하여 삼국 유력 종단의 총무원장, 중진대덕 각 단체장 등 실질적 최고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21세기에 있어서의 불교의 역할과 사명을 논의하게 됩니다.

그러하여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도모하고, 인류의 구제를 위한 공동 노력을 위한 협의를 도출하여 이에 수반되는 사업인 난민구제, 지구촌 환경보존, 인력교류, 정보교류를 위한 기구설치 등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문화 질서를 구축하는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불기 2540년 8월 일

한국 불교 종단 협의회 회장 송 월 주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 서울대회장 송 월 주

7. 대회 일정

일자/시간	행사 내용	장소	비고
9월 9일	12:00-15:00 중국, 일본대표단 입국 15:00-16:00 대표단 등록 16:00-17:00 3국불교 준비위 실무회의 18:00-20:00 대표단 환영만찬	김포공항 세라톤위커텔호텔 사회실 샌플라워 룸	400여명 회의장 30명 200여명
9월 10일	10:00 - 10:30 개회식-축하예송공연 12:00-14:00 오찬-문체부장관 주재 14:00-18:00 기초연설-한·중·일 대표 보충연설-각국 2명씩 18:00-20:00 대회 환영만찬 (한·중·일 참관단 전원 참석)	무궁화그랜드룸 썬플라워 룸 무궁화그랜드룸	1,000명
9월 11일	10:00-12:00 세계평화기원법회 (영산대제 형식으로 진행) 12:00-14:00 오찬-동국대 총장 주재 14:00-16:00 회의(보충연설) 각국명씩 16:00-18:00 폐회식(선언문 채택)	동국대 운동장 동대 학술문화관 무궁화그랜드룸	2,000명 대표단 800명
9월 12일	10:00-12:00 불교문화대전 참관 13:00-16:00 일본 대표단 출국	여의도 행사장	중국대표단은 13일 출국

문의 전화 : 732-4885